백\*\* (33세) 생리불순(붕루, 과다월경, 부정출혈) 치료례

증상 : 약 1년간 부정출혈, 생리기간연장. 약 1년째 한 달에 약 3주는 생리대 착용. 첫 일주일은 매우 소량의 갈색혈이 비치다가 생리량이 울컥 늘기도 하며 끝날 듯 안 끝나면서 15일 이상 생리.

생리 : 2/1~2/22 3/9~3/21 4/3~15, 5/4~14

추가증상 : 빈혈, 전신 허약감, 현기증, 식욕저하, 극심한 피로감. 아랫배 전체가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

치료 : 2월 중순부터 3달간 한약치료 및 침뜸

치료결과 : 먼저 나타난 것은 식욕회복, 기력회복, 현기증 회복. 생리양상은 치료기간 중 생리기간은 총 13일, 13일, 11일로 치료시작 전 3주간 하혈이 지속되던 것에서 생리기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약 4-5일간 미미한 생리가 비치다가 본격적인 생리양상을 띄는 형태로 보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생리 모양이 보이게 됨. 본격적인 생리모양이 잡히면서 총 생리양은 감소함.

백\*\* 환자는 본래도 허약한 체질이었으나 작년부터 생리가 시작할 듯 시작하지 않으며 하루 패드 한 개 이하의 출혈만 비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생리가 시작한 듯 예상은 되나 선혈이 왈칵 보였다 검은혈이 보이며 멈추는 듯하다 다시 검은혈이 하루 패드 6개까지 보이는 등 하며 약 3주간 하혈을 보이는 양상의 생리불순이 나타났습니다. 즉 생리가 끝났나 싶으면 약 일주일후 다시 살살 피가 비치기 시작하여 한달 중 3달은 패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약 1년간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피임약도 복용해 보고 소퇴성 출혈을 유도하여 깨끗하게 생리가 나오도록 돕는 호르몬 주사치료도 반복해 보았지만 별다른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자궁내막두께는 정상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이나 다낭성난소증후군도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기질적 질환은 없었습니다.

체형도 가늘며 살이 무른편이고 피부도 얇은편으로 얼굴과 손색 모두 어두운 보라빛을 띄었고 다가 모발도 가늘고 건조한 등 한의학적으로 허증이라 하는 거의 모든 징후가 나타나 있는 상태로 장기간의 하혈로 인한 뚜렷한 피로감, 식욕부진, 기력저하, 현기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였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허해지면 출혈을 통제하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기운을 따라 혈도 따라서 새어나가며, 중기가 약해지면 위로 올라가기도 해야 하는 기의 흐름이 아래로 쳐지기만 하여 붕루가 발생하는데 백\*\*환자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혈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 내원하여 치료가 시작되면서 7일 후 하혈이 멎었고 현기증, 식욕부진, 혈색의 개선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향후 3월, 4월, 5월 생리는 10일 이상으로 여전히 긴 생리기간이지만 시작과 끝이 분명해졌고 총 출혈량은 감소하였으며 복부 어디든 살짝만 눌러도 아파하였던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습니다.